청소년포교 산실 청교련, 百年大計 꿈꾸다

11월 8일, AW컨벤션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문화공연 더불어 비전 발표로 미래 50년 다짐

1966년 범종단 지도자 모여
'소년교화연합회'로 첫 출발
지도자 등 3만8천명 활동
"청소년 인재 양성에 진력"

불교계 청소년포교의 산실인 (사)청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는다. 청교련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앞으로의 50년을 꿈꾸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자비의 근본정신을 심어줄 계획이다.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는 1966년 4월 어린이 · 청소년 교화를 위해 석주 스님, 운문 스님,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이 뜻을 모아 세운 '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했다. 당시 18개 종단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참여해 1969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로 승격됐다. 초대총재 이대의 스님과 초대회장 안병호 거사는 전국 사찰단위 어린이법회와 중고등학생법회를 실시하며, 청소년불자들의 신행을 장려했다.

1970년대에는 일반학교단위 불교학생회와 전국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공보부에 등록해 사찰어린이법회지도자 · 중고교생지도자 강습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불교청소년단체로 거듭났다. 이후 현 총재인 현성 스님이 연합회를 198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2011년 청소년교화연합회로 명칭 변경했다. 1994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1996년 대한민국 최우수청소년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2013년에는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인증 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승인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교련은 그동안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총 29회) 등을 비롯한 문화사업, 체험 · 봉사활동, 사회복지사업, 국제교류,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16개 지부와 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초 · 중 · 고교생 및 지도자 등 3만8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그린비'를 통해 각종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연합회 사업 등을 직접 모니터링한다. 부설기관 및 지부 · 지회 운영시설로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과 성북2동청소년공부방, 각종 어린이집, 청소년쉼터, 자원봉사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있다. 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가입해 여러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총재 현성 스님은 청교련이 50년이란 세월 동안 불교계 대표 청소년단체로 입지를 다지며 청소년 교화 원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선사들의 당부'를 꼽았다. 현성 스님은 "前 총재이신 석주 스님과 은사이신 청담 스님께서 청소년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셨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늘 당부하셨다"며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교련은 미래 50년을 새로 다지기 위해 11월 8일 오후 5시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강춘기 초대 사진전 '한국의 야생화와 연꽃'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발표 △후원의 시간 △힐링 멘토 마가 스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불자가수 김흥국 씨의 강연 및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교화연합회가 걸어온 길

1966 소년교화연합회 창립
1969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승격
1989 사단법인 등록
1996 최우수청소년단체 대통령 표창
2011 청소년교화연합회 명칭 변경
2013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인증



지난 5월 청교련이 주최한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고, 값진 노력을 격려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29회째 이어졌다.

따뜻함 나누는 슈퍼영웅 '아이연탄맨'

아름다운동행, 연탄기부
캠페인 '아이연탄맨' 시작

올 겨울 유난히 큰 추위와 폭설이 예상된 가운데 쪽방촌은 벌써부터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쪽방촌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연탄지원 사업에 나선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쪽방촌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기부 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시작한다. 올해 3회째 진행되는 아이연탄맨은 전화 한 통에 3천원으로 연탄 5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현재 전국 16만 8473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난다. 그 중 10만여 가구는 저소득 가정이며, 특히 2만 가구 이상이 정부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계획"이라 밝혔다.


성남 장안사(주지 각평) 신도 및 어린이들은 지난 4월 아이연탄맨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 가구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연탄수는 600장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50가정 지원을 목표로 삼고, 연탄 3만장 모연 계획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벅차다. 또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연탄을 떼야하기 때문에 난방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많은 슈퍼영웅들 덕분에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은 ARS 060-700-0011(한 통화 3천원, 연탄 5장 기부) 또는 농협 301-0191-0387-11 및 국민은행 023501-04-236593으로 가능하다. 전화문의 (02)737-9595

한편 아이연탄맨은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참여, 누적 합계 1만6000장 연탄이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내 기증으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조혁수 씨, (사)생명나눔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난치성 혈액암 환자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한 대학생의 사연이 훈훈함을 전했다.

대학생 조혁수〈사진〉 씨는 201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알게 됐다.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기증희망자 등록을 주저 없이 택한 조 씨는 마침내 지난 7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난치성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단 소식을 들었다.

이에 조 씨는 조혈모세포 이식 시 타인과 유전적으로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혔다.

"기증이 결정된 후 건강검진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고 체력단련에도 힘썼다"는 조 씨는 "나의 기증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처럼 기쁘고 뜻 깊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조 씨는 재기증 의사에 대해 "조혈모세포 일치자가 나타나는 행운이 겹친다면 언제든 기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생명나눔 측에 전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도 이미 한 상태다. 특히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수혈 채취와 방식도 같아 부담이 덜해 주변에 적극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명나눔은 10월 19일 조 씨에게 '생명나눔유공장'을 수여했다. 생명나눔은 올해 조혈모세포 실기증자 43명에도 같은 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 백혈구 · 혈소판을 만드는 줄기세포로, 기능 장애시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혈액암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발병시킨다. 이 때 항암제, 방사선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 소멸 후 건강한 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매우 낮아, 부모와 자식이 5%, 형제자매 간은 25% 내외, 타인과는 수만 분의 1 확률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서원 실천이 곧 청소년 인성교육"

김권태 교법사, 불교행복수업 프로그램 소개

"성공과 행복은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각자 새롭게 정의하고 추구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서원 실천이 이 같은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사춘기 청소년에게 서원 실천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김권태 동대부중 교법사〈사진〉는 10월 21일 동대부중서 불교교육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교학연구발표회'서 불교적 행복수업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교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대주제를 '서원(성취)' '감사(지족)' '명상(초월)'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된 불교명구와 이야기를 제시, 행복의 의미를 차근차근 확장해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원하기'는 〈태장계생기〉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이타'를 제시하고, 〈관음본연경〉 속 관세음보살의 서원 이야기로 이어진다. 소원과 서원을 구별하면서 사홍서원을 바탕으로 각자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성취로 함께 이로워지는 것 등을 나열한다.

'감사하기'는 〈대장엄론경〉의 문구와 함께 〈백유경〉 속 '꿀을 달이는 사람' 일화를 소개했다. 지족과 관련된 문장 사경 · 행복액자 만들기 · 연기법적 시쓰기 등의 방편을 제시했다. '명상하기'는 묘비명 쓰기, 다양한 명상법, 대화법 등으로 활동지를 적도록 안내한다.

김 교법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원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가는 '성취', 현재의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지족',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은 성인도 평생 가꾸어야할 주제"라며 "행복의 개념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학생 시절부터 미리 탐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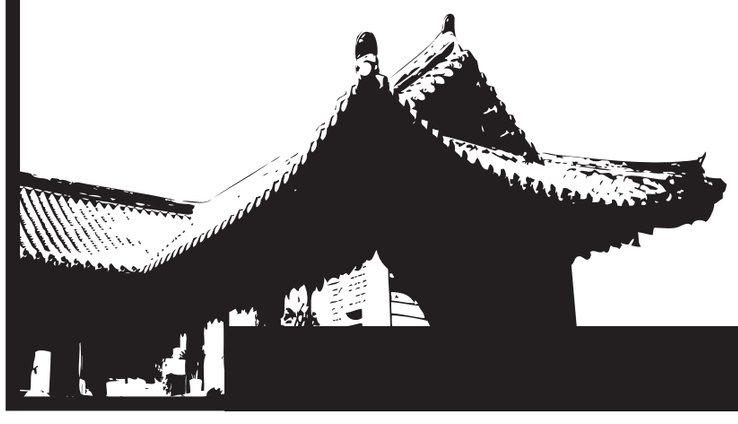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